



2026. 8. 13 (목)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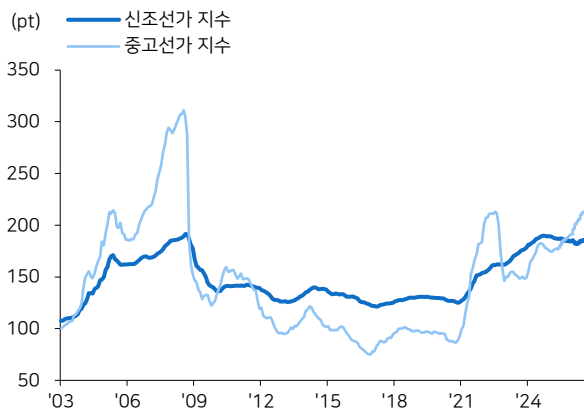
RA 김현비

hyunbee.kim@meritz.co.kr

>>>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5.6p (+0.1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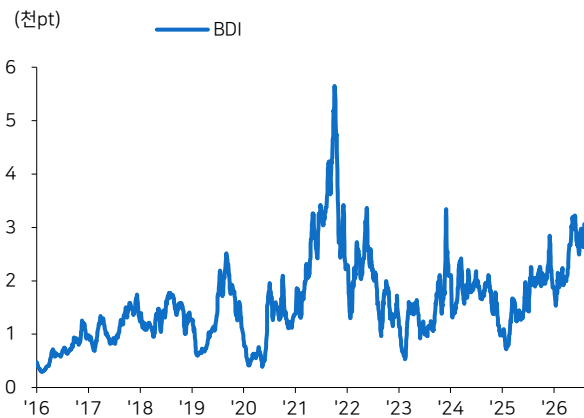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513.0달러 (+1.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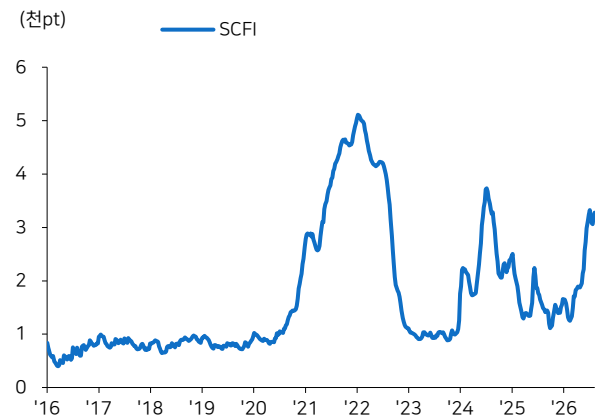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3,046.0p (-37.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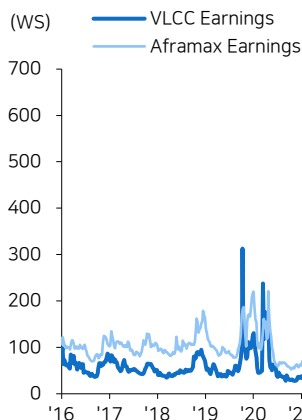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3,276.1 (+70.2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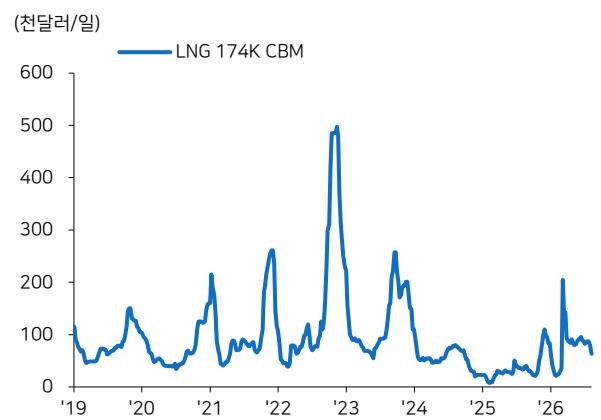
VLCC Spot Rate

274.6WS (+19.7p WoW)



LNG Spot 운임

63.4천달러 (-16.4p WoW)



©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Trump's energy experts forecast Hormuz disruption to last well into 2027 (TradeWinds)

<https://zrr.kr/OjvPwf>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의 단기 에너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중동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인한 원유 공급 차질이 2027년 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도됨. 당초 2027년 초면 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으로 예상됐으나, 호르무즈 해협의 제약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협정 파기 등으로 인해 내년 말까지 하루 약 60만 배럴의 공급 차질이 지속될 수 있다고 전해짐. 이로 인해 글로벌 원유 재고가 감소하고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백악관은 연료비 안정을 위해 미국 건조 선박 사용을 규정한 존스법(Jones Act)의 면제 조치를 90일 연장했다고 알려짐.

Equinor linked to JP Morgan LNG newbuilding charter as Qatar delays delivery (TradeWinds)

<https://zrr.kr/wJ6uzV>

JP Morgan이 소유하고 QatarEnergy가 용선할 예정이던 신조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새로운 용선사로 노르웨이의 Equinor가 지목된다고 보도됨. 중동 분기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과 현지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QatarEnergy는 계약상 권리를 행사해 해당 신조선의 인도 시기를 연기하였으며, 이에 따라 JP Morgan 측의 선박이 단기(1~2년) 기간동안 하루 7만 달러 안팎의 조건으로 Equinor에 대선됐다고 전해짐. 한편 QatarEnergy는 대규모 신조 프로그램과 맞물려 인도 지연 옵션을 활용하는 동시에, 가동이 제한된 기존 통제 물량을 활용해 단기 시장에 선박을 재임대(relet)하며 선단 운영을 유연화하고 있다고 알려짐.

울산대, 페루 해군 SIMA 에 K-조선 기술 전수 나서 (뉴시스)

<https://zrr.kr/5jgNkv>

울산대학교가 페루 해군 및 국영조선소 SIMA 엔지니어 9명을 대상으로 차세대 잠수함 공동개발 계약에 따른 조선해양공학 기초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보도됨. 이번 교육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며, 선박 기본설계부터 구조, 생산, 잠수함 구조설계까지 함정 건조에 필요한 핵심 분야를 HD현대중공업과의 산학협력을 통해 다룬다고 전해짐. 축적된 교육·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내 조선·방산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과 글로벌 기술 협력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전망이라고 알려짐.

한화, 부산대에 계약학과 만든다...영남권 55 조 투자 일환 (조선일보)

<https://zrr.kr/Q8NQdu>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오션·한화엔진이 경상국립대·부산대·국립창원대와 '동남권 지역 인재 양성 협약'을 체결했다고 보도됨. 이번 협약은 김동관 한화그룹 수석부회장의 55조원 규모 영남권 투자 계획의 후속 조치로, 부산대에 계약학과를 신설하고 경상국립대·창원대에 AI 석사 과정을 운영하여 우수 인재에게 학자금 지원과 입사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해짐. 현장 중심 교육과 공동 연구를 통해 지역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으로 알려짐.

신한은행, '신한 SOL 클러스터부산' 개소...조선·방산 등 해양산업 지원 (뉴시스)

<https://zrr.kr/ikXAXu>

신한은행이 부산서면금융센터에 조선, 방산, 함정 MRO 및 항만·물류 분야를 중점 지원하는 '신한SOL클러스터 부산'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보도됨. 해당 센터는 대형 앵커 기업부터 중소·중견 협력기업까지 공급망 전반을 아우르며, 수주·납품 전 운전자금, 수출입금융, 설비투자금융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복합금융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전해짐. 현장에 배치된 특화 RM과 전문 심사역이 초기 단계부터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본점 IB부서 및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북극항로 개척과 스마트항만 전환 등 지역 기업들의 해운·항만·물류 금융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알려짐.

캐나다 전투함 MRO 국제입찰 열린다...K-조선사 대거 출격 (아주경제)

<https://zrr.kr/eeCcvI>

캐나다가 해군 전투함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에 대한 국제입찰을 늦어도 4분기 이전 추진할 전망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HJ중공업, SK오션플랜트 등 국내 주요 조선사들이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됨. 이번 프로젝트는 앞서 추진된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CPSP)와는 별개의 사업이지만, 지난해 양국 국방장관의 방한 이후 논의된 군수조달 및 함정 MRO 협력의 후속 조치로 평가된다고 전해짐. 정부 또한 이를 한·캐나다 방산 협력 확대의 기회로 보고 국내 조선사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어, 향후 입찰 공고 결과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알려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될 수 없습니다.